

# 지금 유통가는 '꽃중년' 잡기 경쟁중

### 은퇴 앞둔 50~60 큰 손 부상...은행권·백화점 등 마케팅 활발 퇴직연금 수수료 감면·영화관 멤버십 출시·문화강좌 개설 등

이른바 '꽃중년'이라 불리는 50~60대 소비자가 마케팅 핵심으로 떠올랐다. '인생 2막'을 의미 있게 보내려는 은퇴층이 늘면서 금융권·유통가가 이들을 선점하려는 전략에 열을 올리고 있다.

광주은행은 퇴직연금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수수료 50% 감면을 내세웠고, 롯데백화점은 시니어 문화강좌를 특화했다.

23일 지역 금융권과 유통가에 따르면 광주은행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지역 사회적기업(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시설 포함)의 퇴직연금 수수료를 50% 감면한다. 대상 기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서' 등을 첨부해 광주은행 거래지점에

신청하면 가입 기간 및 가입금액에 관계없이 수수료가 절반을 감면해 준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퇴직금)을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맡기면 퇴직할 때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100조원대 퇴직연금 시장을 잡기 위한 수수료 인하 경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말 국내 은행들의 퇴직연금 상품들에 들어가 있는 적립금은 총 100조309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6조4281억원) 보다 16.1%(13조8813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우리은행은 10월 중 퇴직연금 수수료

를 추가 인하할 것으로 알려졌고, KEB하나은행은 신규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경품 행사를 진행한다.

김호준 광주은행 신탁연금부장은 "매년 10~12% 성장하는 퇴직연금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고객의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수수료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며 "지역민의 은퇴자금을 증대하고, 지역의 대표 퇴직 연금사업자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통가도 꽃중년 '유혹'에 공을 들이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의 경우 50~60대 고객은 전체 매출의 절반 가까이(42%) 차지할 정도로 '큰 손'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롯데백화점은 '우편 광고물'(DM)에 익숙한 50~60대 고객의 특성을 반영해 한 달에 1~2번 꼴로 우편 발송을 진행하고 있다. 롯데백화점이 1회 발송하는 우편물은 평

균 3만부 정도다. 롯데와 달리 30~40대가 주 고객층인 ㈜광주신세계는 5년 전부터 우편 발송을 중단했다.

또 롯데백화점은 중장년층 고객들이 쇼핑 공간뿐만 아니라 문화생활 공간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 착안해 가을학기 문화센터 강좌를 '시니어 모델 아카데미', '샤롯데 합창단', '한국무용, 악기강좌 등 시니어 문화강좌를 개설했다.

문화를 즐기며 여가를 보내려는 은퇴층을 위한 '영화관 멤버십'도 나왔다.

CGV는 최근 50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는 '노블레스블랙' 카드를 출시했다. 광주·광양·순천 등지에서 쓸 수 있는 이 카드는 연회비 2만원 회원제로 운영된다. 이들 회원은 오후 1시 이전에 극장을 찾으면 조조 할인을 받고 무료 관람권과 매점 할인권, 시사회 우선 초대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091.70 (+0.18)	금리(국고채 3년) 1.33 (0.00)
↓ 코스닥 645.01 (-4.06)	↑ 환율(USD) 1194.00 (+6.00)

## 효성, 13억 인도 시장 잡는다



### 스판덱스 공장 본격 가동 최대 연 1만8000t 생산

효성은 인도 스판덱스 공장(사진)이 지난 20일 첫 상업 가동에 들어갔다고 23일 밝혔다.

공장은 인도 중서부의 마하라슈트라주 아우랑가바드시 인근 아우리 공단에 자리잡고 있으며 연간 최대 1만8000t의 스판덱스를 생산한다. 인도 최대 경제도시 모umbai에서 동쪽으로 280km가량 떨어져 있으며, 부지면적은 약 40만㎡(약 12만평)에 이른다.

인도는 인구 13억7000만명으로 중국

에 이어 세계 두번째이며, GDP는 약 2조7200억달러로 세계 7위의 경제 대국이다.

효성은 이번 공장 가동을 통해 인도 스판덱스 시장 점유율을 기존 60%에서 7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조현준 효성 회장은 "13억 인구의 거대 소비시장인 인도를 적극 공략해 동반 성장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해 2월 인도 뭄바이에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만나 스판덱스 공장을 건립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효성은 인도 다음의 스판덱스 신규 증설지로 미주지역을 검토하고 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 광주서 개발 범죄예방 시스템 중국 40억원 규모 계약 체결

광주지역 IT기업 ㈜파디엔(강혜림 대표)이 개발한 스마트시티 기반 범죄예방 시스템 아퓨(IPU)가 중국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파디엔은 최근 중국기업 QQZM과 아퓨(IPU)의 40억원(330만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QQZM사는 중국 심천에 소재한 대표적인 블랙박스 및 IP카메라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이다. 이번 계약에 따라 파디엔은 아퓨(IPU)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퓨는 인체감지센서와 카메라 등이 부착돼 인적이 드문 곳에서 전원을 켜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작동시키면 주변 인물을 자동으로 감지하는 제품이다.

강혜림 파디엔 대표는 "세계 모든 여성 및 사회적 약자들을 지켜줄 수 있는 혁신적인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무화와 고추장 만들어요" 농협 전남본부부는 지난 20일 영암 신유토마을에서 다문화여성 50여 명을 대상으로 무화와 농업 교육을 진행했다. <농협 전남본부 제공>

## 광주·전남 수출 유망 핵심기업 14곳 집중 육성

### 수출바우처·컨설팅 등 지원

㈜유프렌드 등 광주·전남 수출기업 14곳이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한국무역협회 등 11개 수출유관기관의 지원을 받아 글로벌기업으로도 약한다.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한국무

역협회 광주전남지부·기술보증기금 등 11개 수출유관기관과 함께 수출유망 핵심기업 14곳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수출유망 핵심기업은 지역의 우수 수출기업을 수출유관기관들이 공동으로 선정하고 연계 지원해 사업의 시너지효과를 내

고자 올해 신설한 기업 육성 정책이다. 올해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전국 5000개사를 육성한다는 목표다.

광주전남중기청 등 수출유관기관들은 창업사업화, R&D, 자금, 보증 등 6개 분야를 평가해 14개 수출기업을 최종 선정했다. 광주지역 선정 기업은 ㈜유프렌드, ㈜

에덴뷰, ㈜디오네코리아, ㈜유포마린, ㈜엑스퍼트골프, ㈜휴덴스, ㈜신성티케이 등 7곳이다. 전남지역은 이와이엔씨, ㈜신안그린테크, ㈜펠스톤, 농업회사법인 산들해, ㈜어업회사법인 케이솔트, 북하북포자업단, ㈜카보팜스 등 7곳이다.

이들 기업에는 업체당 3000만~5000만원의 수출바우처를 지원하고, 자금·컨설팅 등 해외 진출 활동을 지원한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 광주본부세관, 5년간 '작통' 1239억원 적발

### 전국 1조8620억원 규모

광주본부세관이 최근 5년 동안 1239억원 어치(40건)에 달하는 '작통' 밀수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인천 미추홀구)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간 광주본부세관에 적발된 작통(지식재산권 위반) 물품 규모는 1239억원으로, 전국 6개 본부 가운데 3번째로 많았다.

광주세관 적발 규모는 ▲2015년 237억원(18건) ▲2016년 686억원(9건) ▲2017년 273억원(4건) ▲2018년 39억원(6건) 등으로 나타났다.

전국 규모는 1조8620억원으로 광주세관 비중은 6.7%였다. 올해 8월까지 광주세관에서는 4억원(3건) 어치의 작통이 적발됐다.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적발된 작통 명품 가운데 '루이비통' 브랜드(2080억원 어치)가 가장 많았으며, 위조품 가운데 90% 가량은 중국에서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루이비통에 이어 롤렉스(1198억원), 샤넬(1122억원), 카르티에(625억원), 구찌(371억원), 프라다(272억원), 에르메스(227억원) 등의 위조 명품이 뒤를 따랐다.

품목별로는 시계류가 665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가방(5074억원), 의류(3033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양방택 광주본부세관 조사과장은 "2015~2016년 강화된 단속 효과가 이듬해부터 나타나며 단속 금액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며 "출퇴근이나 오프라인 매장을 활용하던 기존과 달리 밀수 유형이 다양화됨에 따라 카카오톡 등을 통한 개인 판매가 활성화되면서 단속에 애를 먹고 있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

#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3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 부동산 추천 물건

- 토지** 전북 순창군 팔덕면 덕천리 (계획관리지역) 토지 : 3834㎡(1159.78평)  
**매매가 2억9천만원** 강천산휴게소, 순창전통고추장민속마을을 인근, 투자기초 좋음.
- 토지** 광주 동구 지산동 (자연녹지지역) 토지 : 1948㎡(589.27평), 건물 : 255.61㎡(77.32평)  
**매매가 26억5천만원** 지산유원지 카페거리 조정가능.
- 건물** 광주 서구 치평동 (중심상업지역) 토지 : 434.44㎡(131.4평) 건물 : 2536.91㎡(767.42평)  
지하1층 지상7층 **매매가 : 55억** 상무지구 이마트 인근, 상권최상, 수익률최상.
- 건물** 광주 광산구 월곡동 (준주거지역) 토지 : 1686.5㎡(510평) 건물 : 3000.8㎡(907.74평)  
지상2층 **매매가 : 45억** 아파트밀집지역, 중심상권.
- 건물** 광주 광산구 우산동 (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623.8㎡(188.7평) 건물 : 1642.56㎡(496.87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32억** 현 사우나 운영중, 세계수영대회 선수촌아파트 앞.
- 병원** 광주 광산구 삼계동 (계획관리지역) 토지 : 4556㎡(1378평) 건물 : 2766.44㎡(836.844평)  
지하1층 지상3층 **매매가 : 40억** 현 요양원 운영중, 빛그린국가산업단지 인근.
- 병원** 광주 광산구 신가동 (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900㎡(272평) 건물 : 1900㎡(547평)  
지상6층 **매매가 : 36억** 전시광고효과 좋음, 신가재개발부근, 투자적합.

**"상무지구 · 법원 앞 수익률,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량 보유"**

#### 경매 추천 물건

- 근린시설** 전남 목포시 명륜동 토지 1131㎡(342.128평) 건물 : 7617.71㎡(2304.367평)  
지하3층 지상8층 **감정가 : 54억6천5백만원 최저가 : (70%) 38억2천5백5십만원**
- 근린주택** 전남 장성군 진원면 산정리 토지 : 224㎡(67.8평) 건물 : 264.27㎡(79.9평)  
지상2층 **감정가 : 4억6천2백만원 최저가 : (70%) 3억2천3백5십만원**
- 다가구(원룸)** 전남 화순군 동면 백용리 토지 : 1582㎡(478.6평) 건물 : 298.92㎡(90.4평)  
창고, 공장, 근린시설 적합 **감정가 : 3억6천1백만원 최저가 : (56%) 2억 2백2십만원**
- 다가구(원룸)** 광주 북구 풍향동 767 토지 : 227㎡(68.7평) 건물 : 749.02㎡(226.6평)  
지하1층지상3층 **감정가 : 6억7천7백만원 최저가 : (70%) 4억7천4백만원**
- 주택** 광주 남구 백운동 토지 : 225.5㎡(68.214평) 건물 : 243.77㎡(73.74평)  
**감정가 : 3억1백3십만원 최저가 : (70%) 2억1천9십만원**
- 아파트** 광주 서구 금호동 쌍용에가 55평형 **감정가 : 8억3천5백만원 최저가 : (70%) 5억8천4백5십만원**
- 아파트** 광주 서구 풍암동 에스케이뷰 56평형 **감정가 : 8억2천만원 최저가 : (70%) 5억7천4백만원**
- 오피스텔** 광주 서구 치평동 로잔티움파크 78평형 **감정가 : 4억4천1백만원 최저가 : (70%) 3억 8백7십만원**

**"광고 외 모든 경매물건 상담, 진행가능"**

광주·전남 10~200억대 건물, 병원 다량보유 / 매매·임대·급매 전문/ 경·공매 전문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10-4234-8640, 062-714-2251